

김현미 장관, “태풍 대비에 만전 기해야”

-25일 도로·철도·공항 등 태풍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조치 지시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제8호 태풍 「바비」의 북상 상황을 보고받은 후, “역대 급강풍을 동반한 태풍에 대비하여 도로, 철도, 공항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”를 지시하였다.
- 특히, “이번 태풍은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도, 공항 등에 운행 및 운항 제한, 사전 결박, 해상교량의 교통통제 등 사전 안전대응 조치”를 강조하였으며,
-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“타워크레인 사전 안전조치 및 기상상황에 따른 작업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또한, 김현미 장관은 “태풍이 지나가더라도 피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2020. 8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